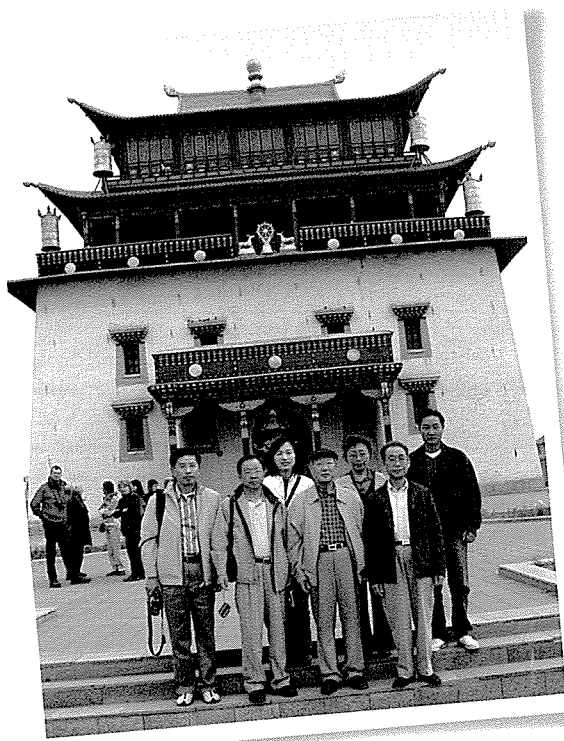


# 한-몽골 건강증진 시범사업, 그 문을 열다(1)



9월 6일(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타우, 두르브, 고로, 호요르, 내, 제로. 그 순간 김상인 회장님을 비롯하여 홍창의 고문님, 조한익 부회장님, 필자를 비롯한 2004년도 한-몽골 건강증진사업 시범사업단 9명을 태운 몽골항공 OM 302편이 18시35분 인천공항 활주로를 박차고 저녁 하늘을 향하여 솟아 올랐다.

약 10여 년간 중국과 라오스 현지에서 기생충관리 시범사업을 꾸준히 수행하여 오던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신체체측, Urine 검사, 빈혈검사, 간기능검사, B형 간염검사, ECG를 이용한 심장검사 등 건강검진 종목을 추가하여 시범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국제

사업 세 번째 국가가 되는 몽골을 향하여 첫 발을 내 딛는 순간이다. 2003년도 김상인 회장님의 몽골 방문 답방 형식을 빌어 Nymadawa 몽골 보건부 장관이 협회에 내방하여 몽골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가시적 산물의 결과로 선정된 Ulaanbaatar 제 15학교(몽골에서는 초·중·고등학교가 통합되어 운영됨) 학생 건강검진과 보건교육을 위한 첫 번째 시도인 셈이다.

창가로 밤하늘에 그려진 구름과 노을 빛의 조화에 감탄의 탄성을 연발하다가 잠시 눈을 감고 평소에 들어오던 넓은 평원, 유목민들의 말 타는 모습, 양떼 무리들, 대륙을 횡단하던 징기스칸의 기상을 생각해 본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에 젖어 있는 것도 질투의 대상인가? 잠시 상상의 날개를 펴보기도 전에 어느새 미녀의 음성이 들려온다. “안전벨트를 매 주십시오 잠시 후 목적지인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공항은 어둡고 약간 쌀쌀함이 맴도는 지방 간이역 같았다. 여행객이나 마중 나온 사람들이나 우리와 얼굴이 비슷한 게 별로 외국이라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짐을 찾아 가지고 밖으로 나오려는데 출입국 관계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검사를 받기 위해 식사를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사탕, 초콜렛, 라면과 김치 통조림 등 약간의 부식이 있었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다. 마침 몽골 보건부 산하의 DMS(의료서비스위원회)에서 우리를 마중 나온 Dr. Enkhmaa 선생의 설명에도 막무가내다. 한 시간이상이나 실랑이를 한 끝에 “정 그렇다면 그냥 두고 가겠다”고 나오려니까 그제야 가져가란다. 예약을 했던 Bayangal Hotel에 여장을 풀고 새벽 2시가 훨씬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9월 7일(화), 아침 7시. 어젯밤 흥 고문님께 고령이신 점을 고려하여 편하게 유하시라고 큰방을 드렸었는데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것 같아 좀 작은 방으로 옮기셨단다. 그런데 더운 물도 안나오고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 자그마한 전기난로를 켜놓고 겨우 잠을 청했다고 하신다. 한 단원은 샤워를 한다고 비누칠을 신나게 하였는데 나오던 물이 갑자기 끊어져 고생을 했단다. 아마도 흘러내리는 비눗물을 마른 수건한 장으로 해결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그래도 별 네 개쯤 되는 비싼 호텔이었는데 말이다.

회장님을 비롯한 부회장님, 고문님, 그리고 필자는 Manager팀, 황 과장을 비롯한 실무자 팀으로 나누어 실무자 팀은 15학교로 가서 학생 검사준비를 하도록 하고 Manager팀은 인사차 DMS로 향하였다.

Dulamsuren 의료서비스 위원회 위원장과 Dr. Jagarsaikhan Dondog 그리고 관계자들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사인바누~” 하고 인사를 했더니 놀라는 얼굴이다. 양국의 관심사인 보건의로 System, B-

type 간염백신 접종, 검사실 Quality control, 학생들의 빈혈, AIDS 문제, 기생충감염실태 등 여러 가지 건강관련 분야의 얘기들을 나누다가 두 시간 후에 장관 인사차 보건부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제 15 학교로 향하였다. 미리 도착해 있던 실무 팀에서 건진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었다.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지나치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우리말로 인사를 한다. 후에 안 일이지만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학생들에게 한국말 인사를 가르쳐 준 것 모양이다. Baljinyam 교장 선생님, Davvajab 교의 등 선생님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는데 특히 교장 선생님은 회장님과 구면이라면서 지나치리 만큼 친절하였다.

일단 학생들의 검사가 시작되고 교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 장관을 만나기 위해 Manager팀은 보건부를 방문하였다. P. Nymadawa 몽골 보건부 장관은 의과대학 출신으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검체검사 정도관리에 관해 말씀을 나누시는 걸 보면 기초의학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 같다. 몽골의 건강증진 문제와 15학교 학생 검사에 대해 설명하고 한·몽골 시범사업 협약서 작성에 대



한 협의를 마친 후에 다시 학교로 발길을 재촉하였다.

오후부터 11일까지는 2, 4, 6, 8, 10학년과 선생님들의 검사일정으로 스케줄이 짜여 있다. 첫날은 2학년 어린 학생들이 대상이라서 혹시나 한 아이가 울면 뒤에 있던 학생들이 계속 울어대지나 않을까? 채혈을 처음하는 학생들이라 80년대 초 협회가 건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긴장을 하고 있다가 도중에 쓰러지는 불상사는 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지만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한 가지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게 문제였다. 궁리 끝에 “줄을 서세요”, “팔을 걷으세요”, “구두를 벗으세요”, “바로 서세요”, “앞을 바라보세요”, “화살표를 따라 가세요”, “위 옷을 가슴까지 올리세요” 등등 건진 시 필요한 말을 몽골어로 써서 적당한 곳에 붙여 놓고 손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앞사람을 보고 아이들이 영리하게 순서를 잘 따라 한다. 어느 새 건진팀의 말이 한국말로 바뀌어 간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좋아요, 좋아요”.

일정이 빠듯한 것을 알기라도 하듯 Dulamsulen 위원장이 시범사업 협약서에 서명하고 학생검사 진행상황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서 제15학교로 찾아왔다. 서명을 마치고 건강진단 전 과정을 일일이 지켜보던 Dulamsulen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말에 서투른 통역을 통해 진찰하시는 고문님의 모습에서는 마치 의성 히포크라테스를 만난 것 같이 감명의 빛이 얼굴에 역력하다. 부회장님도 채혈을 하시랴, 검사를 끝낸 학생들에게 우유와 빵을 제공하시랴, 실무팀 보다도 더 바쁜 모습이다.

한 학생에게 소변을 컵의 3분의 1쯤 받아 오랬더니 “알아요”라고 대답한다. 정색을 하며 어떻게 한국말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한국의 몽골인 학교에서 2년간 교육을 받았고 얼마 전에 이곳 제15학교에 편입하였단다. 친구도 몇 명 안되어 외롭고 학교생활도 익숙지 못한 모양이다. 한국어는 인사정도가 고작이란다. 또 한 학생은 울산 유소년 축구단복을 입고 있었다. 이 친구에게도 “울산”이라고 쓴 글씨를 가리키며 아

느냐고 물어보니 한국어는 한 마디도 못하는 토종 몽골인이다. 다음 해에 왔을 때 통역으로 활용했으면 하던 기대가 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9월 8일(수), 잠시 시간을 내어 회장님과 고문님이 소아병원에 다녀오셨다. 어제 주민대표 3명이 찾아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그 중에는 소아병원의 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자기 병원도 한번 돌아보고 지원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소아 병원은 러시아의 점령시절에도 운영되었던 꽤 오랜 역사를 가진 병원이었는데 우리나라 6~70년대를 회상하게 하는 모양이다. 의사는 60명 정도인데 검사실은 요원 1명이 현미경 1대, 그리고 재래식 Cell counter를 가지고 혈액검사를 하고 있다. 인정 많으신 우리 회장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오죽하면 마음만 괴로우실 것 같다.

교장선생님이 식사 후에 마시라면서 커피포트와 1회용 커피 그리고 세수 비누를 갖다 주셨다. 그런데 막상 일과 후 손을 씻으려니까 물이 나오지를 않는다. 손짓 발짓 유창한 Body-language로 물이 안 온다고 설명을 했더니 친절하게도 내 손을 잡고 직접 화장실로 안내를 한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급히 설치한 듯한 좌변기에 설치된 물 내리는 button을 가리킨다. 자꾸 설명을 하기도 어려워서 알았다는 시늉을 하고 그 분이 나간 후 살짝 눌러봤더니 그마저 감감 무소식이었다. 다시 Davvajob 교의에게 손 닦는 시늉을 했더니 기어이 자기를 따라 2층 양호실로 가자고 한다. 교의 선생님이 직접 수도물을 틀어주는데 따듯한 온수가 팔팔 잘도 나온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학생검사 장소로 사용하려고 페인트칠도 하고, 수도도 고치고, 탁자 커버도 말끔히 바꾸어 놓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1층 교실 두 개를 검사 장소로 쓰게 되니까 단장해 놓은 양호실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엄지손가락을 높이 치켜들고 Good을 연발해 주었다. Z